

방에 누우면 하늘의 별이 보이고, 비 오는 날엔 방안에 빗물을 받는 그릇이 가득하였다.

아산의 청백리(清白吏) 이단석(李端錫)

1623년(인조1년)~1688년(숙종13년), 아산 영인 출생.

조선 숙종 때의 문관 자(字)는 유초(有初)호는 쌍호당(雙壺堂)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경명군(景明君)참찬(參贊)(성종의 왕자)의 7세손(世孫) 집의(執義) 제형(齊衡)의 아들로 효종 때 사마에 합격하고 서기 1660년(현종1년)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내직(內職)인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에서 정언(正言), 지평(持平), 집의(執義)에 이르러 논계(論啓)한바 많았으며 숙종 때 광주부윤(廣州府尹)에 보직 되어 잘 다스려 숙종의 신망을 얻었다.

경상도(慶尙道) 관찰사(觀察使)가 되어서는 부정을 일삼는 관리를 숙청(肅淸)하여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문무(文武)에 재질에 있어 관북병마절도사(關北兵馬節度使)가 되어 방위를 엄하게 하고 군영(軍營)을 정돈하여 북방의 방어에 만전을 기하였다. 충청, 함경 관찰사를 거치면서 국고를 충실하게 하고 나쁜 폐단을 씻은 듯이 시정하였으며, 조정에 돌아와서는 각조의 참판(參判)을 역천(力薦)하였으나 언사가 준엄(俊嚴)하였으므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대간의 탄핵을 받았다.

전조(銓曹)에서 나주(羅州) 목사(牧使)로 좌천케 하였으나 숙종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더욱 우대하여 등용하려 하던 차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

청백리(清白吏)로 살았기에 유산이 없어 처자(妻子)들의 생활이 곤란하여 조정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후8년 숙종25년(1699년)4월 3일.....생략

지경연(知經筵)이유가 아뢰기를 고(故) 참판(參判) 이단석은 청백(清白)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죽고 나서는 송곳하나 세울 땅도 없어서 그의 아내가 언서(諺書)로 단자(單子)를 올려 급박함을 구제할 수 있는 도움주기를 빌었으니 그 정상이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청백하였다는 것을 더욱 증험(證驗)할 수 있으니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금년부터 매달 쌀 1곡(斛: 10말)씩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청렴을 권장하는 법전에 부합 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경기도 양주 관아터 내에 있는 이단석 송덕비

*사후12년 숙종29년(1703년) 3월 7일.....생략

이인엽이 말하기를.....중간생략.....

고 참판 이단석의 아내에게 월름(月廩)을 주라고 명하였다. 이단석은 청백의